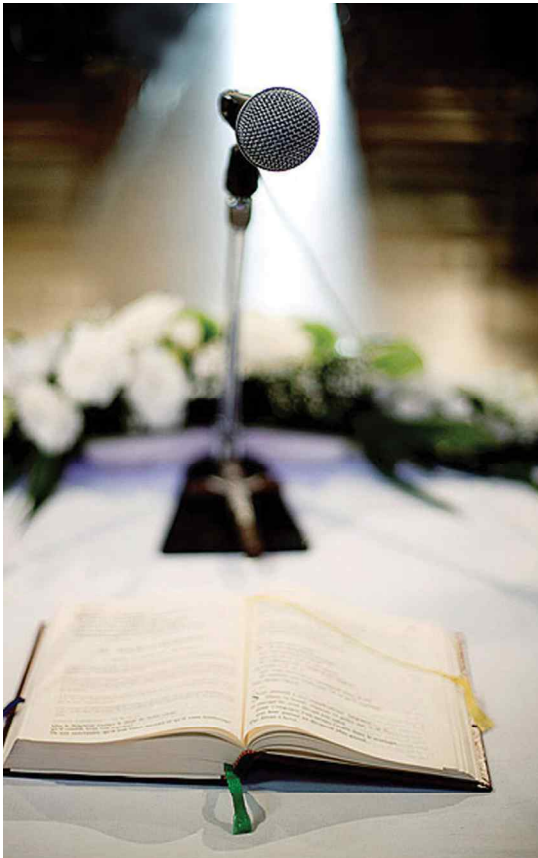


말의 굴욕



글 박동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등장하는 주제는 말이다. 기독교의 본질이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말을 하시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본질이 ‘말(씀)’이시다. 이 말(Parole)이 하나님 곁에 있었고, 잠시 잠깐 육신으로 변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면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인간의 말과는 다르게 절대로 비워 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비워서 스스로가 직접 행동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빛이 있도록 굳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단지 빛이 있으라고 말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 디바르는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효력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의 공간, 디바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며, 우리는 바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아니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 문제는, 이 디바르 공간, 하나님의 말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현대인은 직접 정신이라는 공간, 개념이라는 공간, 영적 세계라는 공간, 역사라는 공간을 창조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대부가 되기도 하고, 거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위엄 가득한 창조주가 되기도 하고, 착한 아빠가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각종 예언을 풀어내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자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려고 열망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단지 모세만이 예외적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말 속에 있는 것이며,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즉 하나님의 말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 있으며, 이 말을 통하여 그분의 창조적인 힘, 명령하는 힘, 하나님의 결정이 전달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은 한번 외치고 사라지거나, 한순간 우리의 뇌리를 때리고 망각 속으로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란 도저히 부인

막강한 이미지 사회가 되어 버린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미지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환각시키고, 사회통제에 강하게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정보는 과잉되고, 말의 기능과 역할은 정보의 전달로 축소되었고, 진정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배제시키면서 그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며, 이 흔적은 세상 속에서 요동치고 역사를 만들어 버리고, 인간의 심한 궁핍과 근본적인 허영을 여지없이 드러내 버리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의 힘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은 단순한 어휘와 통사구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버린다. 인격이 된 이 말에 기독교의 모든 존재근거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의 힘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가되었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각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아담 앞으로 줄줄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 아담은 각 존재에게 하나씩 그 이름을 부여하면서 창조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느 시인의 문구처럼, 아담은 짐승과 사물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모든 존재와 관계맺음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일체의 관계가 배제된, 자기와 무관한 단순한 물질이었으나,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 즉 기표(記標, 시니피양)와 기의(記意, 시니피에)를 설정함으로써 완전한 의미의 세계를 연 것

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은 하나님과 창조물과 진실한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주권적 힘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적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말은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은 진정한 자유의 표현이며,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 자유롭게 한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담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미지 사회에서 말의 위상

그러나 막강한 이미지 사회가 되어 버린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미지가 지니는 직접성, 즉각성이란 특성은 모든 것을 환원불가능하게 하고, 명령적이며 비시간적으로 만들고, 일체의 비판적 거리를 삭제하면서, 청자가 누리는 자유의 여지를 빼앗아 간다. 말이 늘 하나의 신비며, 해석해야 할 수수께끼이며 무한한 역설의 진리를 담지하고 있으나, 이미지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환각시키고, 사회통제에 강하게 참여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이미지의 승리와 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강한 이미지의 과잉을 만들어내고, 말을 선전과 광고에 철저히 이용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정보는 과잉되고, 말의 기능과 역할은 정보의 전달로 축소되었고, 진정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배제시키면서 그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급기야 오늘날 말은 진실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진리를 내포할 필요가 없어졌다. 오히려 진리는 허구적이고, 거짓되고, 위조되었으나 유일하게 그럴듯하



게 보이는 이미지로 포장된 채, 사람의 감정과 감정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얻는 부산물 정도로 여기게끔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허한 수다일 뿐이며, 진실을 알 수 없는 정보를 끌어 담은 뉴스보도처럼 무의미할 뿐이고, 이미 누군가 해석해 놓은 어휘다발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 기술사회에서 만남의 부재, 화자와 청자의 부재가 이러한 말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말하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 아무 것도 말할 것이 없고, 듣는 자도 자기 자신을 통해 아무 것도 받아들일 것이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결코 단어들은 말(parole)이 될 수 없다. 말은 스스로 자기 자체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만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더 아우성을 치는 모습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언어의 향연, 말의 굴욕

내가 이렇게 말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은 것은, 이번 주에 겪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그 하나는 어떤 집사님과 전화통화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속된 자살 소식 때문이었다. 며칠 전

다른 한 오후, 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에게 생전 전화를 하지 않았던 집사님이 그날따라 나에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평소 무관심한 나의 태도를 은근히 꼬집으면서 이번 주 있었던 부흥회에 대해 분개하셨다. 분노의 원인은 부흥강사의 언행과 메시지 내용 때문이었고, 그것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교회의 태도 때문이었다. 늘 그렇듯이 부흥회에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았다. 일단 강사는 깡패출신임을 내세워 상스러운 욕과 교회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지막지하고도 거친 언사를 휘둘러댄 것이다. 녹취하지 말라는 친절한(?) 당부와 함께, 그의 말 대부분은 돈을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며, 목회자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절정에 이 분은 목사님께 드릴 헌금을 작성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착한 성도들은 헌금을 작성했고, 욕지거리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여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집사님이었건만, 이번 부흥회의 내상은 깊었던지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매섭게 세웠다. 나는 그분의 분노 어린 논리에 단 한마디도 답할 수 없었다.

“KAIST 학생들은 인성과 창의적 리더십을 갖춰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과학자도 필요하지만 빌 게이츠와 같이 자유로운 발상으로 꿈을 펼치는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라는 교육철학을 내세우면서 2006

년 화려하게 등장한 서남표 총장은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수’라는 모토를 내세워 정년보장 심사 강화, 수업료 차등 부과제, 100% 영어 강의 등으로 대학 개혁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란 환상적인 표어는 4명의 학생들의 연속적인 자살과 “이런 학교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사실 대학의 개혁이란 미명아래 시장에 팔린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비단 KAIST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서울대 모 교수는 은퇴하면서 대학총장은 세계대학평가 랭킹에만 몰입하고, 교수들은 SCI 등재 논문편수 세는데 여념이 없고, 학생들은 오로지 스펙쌓기에 청춘을 보낸다 고 일갈했다. 그리고선 ‘누가 대한민국의 길을 묻거든 절대로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지 말라’고 열(spirit)빠진 대학의 실상을 폭로하였다.

참으로 교회에는 각종 집회와 행사가 난무하고 덩달아 설교가 쏟아진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감동적 문장들이 쏟아진다. 신학교에서는 각종 신학과 이론들이 막강한 상징자본을 구축했다. 사람이 언어기호로 구축한 표상체계들은 점점 정교하고, 세련되어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진리 비슷함을 뿜어낸다. 그리고는 그곳에 빠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언어의 향연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무시할 수 없는 정신적, 정서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개혁과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화려한 온갖 수사가 난무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구성원과 학생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으로 오늘날 말은 철저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교회에서든, 대학에서든 이제 우리의 말 속에 이웃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진실은 사라지고, 의사소통은 사라졌다. 우리의 말은 한낱 수다일 뿐이며, 무의미한 나불거림일 뿐이다. 그것이 한 시간 예배 속에 존재하는 명설교이든지, 찬양집회의 가슴 떨리는 멘트이든

지, 화려한 대학의 장밋빛 청사진이든지,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한낱 사람의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말보다는 진실한 관계회복이 우선

이제 또다시 말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이 필요하다. 이제 2000년 전의 가난한 나사렛 청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청년을 뒤따르는 21세기 가난한 청년들을 통해서 말이다. 나사렛 청년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였으나, 오늘날의 청년들은 말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말을 영원히 화해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굴욕당한 말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철저히 회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웃을 재발견하고, 그들과 진실함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말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예화와, 성서 해석과, 화려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참히 굴욕당한 말일 뿐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잃어버린 장애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말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작 두려운 것은 굴욕당한 말로 인하여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말의 타락으로 이미 우리에게 돌아서신 아버지의 등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를 근심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한기총 해체, 전근대적인 대학 시스템의 해체가 문제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이룩한 영육의 우리교회들과,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산업역군으로 일하신 아버지들이 쌓아놓은 우리 국가의 해체가 시작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돌아선 하나님의 등을 다시 돌리는 일,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지 않고는 못 배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기도를 시도하는 일이다.